

최근 노동시장 동향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

남재량(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분석센터 소장)

- ◎ 2013년 5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6만 5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 둔화
 - 이는 2012년 5월의 취업자 증가폭(47만 2천 명)이나 2011년 5월의 취업자 증가폭(35만 5천 명)에 미치지 못하며,
 - 지난 4월의 고용성과(취업자 34만 5천 명 증가)를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
 - 2013년 1~5월의 이러한 고용성과 부진은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뿐만 아니라 2012년 고용호조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일부 기인

- ◎ 취업자 증가폭 둔화는 청년층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이들이 50세 이상 연령층의 고용성과를 상쇄하는 한편, 제조업 및 대기업에서 취업자 증가를 주도
 - 청년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자 수는 감소(8만 4천 명)하여 50세 이상 취업자 증가(36만 6천 명 증가)를 상쇄
 -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(10만 5천 명)가 지속되고 있으나(3개월 연속 10만 명 이상 증가),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속적으로 둔화(18만 7천 명 증가)
 - 제조업 취업자 규모는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, 최근의 지속적인 증가는 2012년의 기저효과와도 관련
 - 대규모 사업체(300인 이상)의 취업자 수가 증가(15만 명)한 반면, 취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(300인 미만) 사업체 취업자 수는 26만 5천 명 증가하는

데 그침

- ◎ 고용률(60.4%)은 전년동월에 비해 0.1%p 감소하여 횡보하고 있으나(15~64세 고용률은 65.0%로서 역시 0.1%p 감소), 부문이나 집단별로 여러 특징들이 존재
 - 청년 고용률은 성(性)과 5세 연령으로 구분한 모든 집단들에서 감소하고 있어 고용률 감소를 주도하는 한편, 50세 이상의 고용률 증가는 지속(남녀 모두)
 - 남녀 모두 고용률 하락
 - ※ 여성 30~34세 고용률 큰 폭 상승(2.5%p) 지속

- ◎ 상용직 근로자 수의 대폭 증가는 5월에도 계속
 - 상용직 근로자가 무려 66만 1천 명이나 증가한 반면, 임시직과 일용직은 각각 19만 명, 1만 9천 명 감소하였으며, 비임금 근로자도 18만 8천 명 감소
 - 상용근로자의 증가는 외환위기 이전부터 지속되어온 매우 장기적인 추세이나, 전년 동월대비 66만 1천 명 증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를 받은 2010년 12월(71만 5천 명 증가) 이후 최대
 - 상용직 증가는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나, 특히 제조업(17만 명)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(12만 명)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짐
 - 최근 큰 폭의 상용직 증가는 기업의 상용직 신규채용(입직)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(3개월 미만 상용직 근로자 수는 감소), 이직의 대폭적인 감소에 주로 기인하는데, 이는 경기부진과 고령화의 여파로 해석 가능
 - 입직과 이직으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유량 감소는 노동시장 활력 저하를 반영

- ◎ 자영업의 경우 2005~2011년 동안 상당한 정도의 구조조정이 이미 진행된 상태
 -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009~2010년 동안에 걸쳐, 그리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05~2011년에 걸쳐 고용조정이 이루어졌음
 - 또한 최근 자영업자 수의 감소는 구조조정의 심화에 따른 자영업에서 퇴출이라기보다는 주로 자영업으로 진입 감소에 의한 것으로 파악 가능

- ◎ 산업과 직업 및 지역을 살펴보면, 특정 부문에서 취업자 증가가 현저
 - 제조업의 경우 4개 업종(고무 및 플라스틱, 자동차 및 트레일러, 기계장비, 1차금속)이 특히 취업자 증가를 주도
 - 직종별로 보면,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조작직(85)과 전기 및 전자관련 기계조작직(86), 제조관련 단순노무직(93)의 고용증가가 두드러짐
 - 지역별로 고용성과의 편차가 존재하며, 고용률의 경우 제주, 충남, 경북이 높고 부산, 광주, 대구가 낮음
- ◎ 고용 및 경기 선행지표 가운데 하나인 구인구직비율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횡보하고 있어 향후 고용상황은 불투명

최근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

- ◎ 명목임금 및 실질임금 상승률 그리고 협약임금 인상률 모두 전년동기 성과에 미달
 - 명목임금(2013년 3월) 4.1% 상승, 1~3월 평균 명목임금 3.7% 상승, 3월 실질임금 2.7% 상승, 5월 협약임금 인상률 4.3% 상승
 - 이는 전년 같은 기간의 실적, 즉 2012년 3월 명목임금 상승률 5.5%(1~3월 상승률 7.7%), 실질임금 상승률 2.8%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
 - 협약임금 인상률(4.3%) 역시 2012년 5월의 5.3%보다 낮은 상황
- ◎ 근로시간 역시 전년동기대비 감소하고 있는데, 1~3월 평균 근로시간은 글로벌 금융위기 하의 2009년 동기 근로시간에도 미치지 못함
 - 근로시간의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더해 경기침체의 여파까지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 존재
 - 1~3월 평균 근로시간은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감소(건설업은 2.5시간 증가)

최근 해외 고용 동향

- ◎ 유로존 실업률의 상승과 미국 실업률의 하락 지속으로 이들의 실업률 격차 확대
 - 미국 실업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(9%대)에 비해 크게 하락(최근 7%대)하였으나, 유로존 실업률은 2012년부터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여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
 - 청년 실업률에서도 유사한 특징이 존재, 다만 최근 미국 청년 실업률이 다소 상승

- ◎ 유로존 가운데 여전히 독일의 고용성과가 우수하나,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(그리스, 스페인, 이탈리아)의 고용성과 부진 지속으로 유로존 전체 고용실적 악화
 - 독일의 고용률은 최근 73%를 넘고 있어(2012년 4분기 73.1%)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도 더 높는데, 이는 청년(2012년 4분기 46.7%)의 경우도 마찬가지로
 - 그리스, 스페인, 이탈리아의 고용률은 50% 수준이며, 청년 고용률은 여전히 10% 수준에 불과
 - 특히 스페인의 청년 고용률(2013년 1분기 16.7%)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(40%에 육박)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, 그리스의 청년 고용률(2012년 4분기 12.3%)은 위기 이전(24% 수준)의 절반에 불과
 - ※ 그리스의 청년 실업률 62.5%(2013년 2월), 스페인의 청년 실업률 56.4%(2013년 4월)

- ◎ 일본의 고용성과가 우수하며 개선 지속
 - 고용률이 2013년 들어 71%를 넘어섰는데, 이는 지속적인 개선의 결과이며,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성과를 이미 능가
 - 일본의 청년 고용률은 2013년 들어 40%에 육박하고 있으나, 위기 이전의 41% 수준에 미달

- ◎ 한국의 고용률은 OECD 평균 수준이나, 청년 고용률이 매우 낮은 상태
 - OECD 평균 고용률은 65.1%(15~64세, 2012년 4분기)이며, 한국의 고용률은 64.2%로 이에 근접

- 그러나 한국의 청년 고용률은 24.3%(15~24세, 2012년 4분기)로 OECD 평균에 크게 미달

※ 시간제 여성 일자리의 직종 및 업종 분포 국제비교

- ◎ (직종분포) EU 주요국 가운데 시간제 비중이 높은 나라는 전문가 및 사무직에 주로 분포하고 있고, 시간제 비중이 낮은 나라는 단순노무직에 시간제가 많이 분포
 - 시간제 비중이 낮은 나라 : 헝가리, 그리스, 포르투갈, 스페인 등
 - 시간제 비중이 높은 나라 : 벨기에, 독일, 체코, 룩셈부르크, 네덜란드, 아이슬란드, 스위스 등
 - 우리나라도 전문가와 사무직 합쳐서 시간제의 35% 미만이 분포
 - ※ 단, 시간제 비중과 무관하게 서비스 및 판매직에는 많은 시간제 취업자가 분포
- ◎ (업종분포) 시간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예외 없이 공공행정, 교육, 보건, 사회복지업처럼 정부의 역할이 큰 사회서비스 분야에 시간제가 많이 분포
 - 시간제 비중이 낮은 EU 국가들은 도소매, 숙박, 음식점업에 시간제가 더 많이 분포
- ◎ (시사점) 유럽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여성 취업자 중 시간제가 늘어난다면 단순노무직보다는 전문가나 사무직에서, 업종으로는 꾸준히 고용규모가 커지고 있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필두로 한 사회서비스업에서 잠재력이 클 것으로 예상 가능
 -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전문가, 사무직에의 시간제 분포가 크지 않고, 도소매, 숙박, 음식점업 분포(35.6%)가 많다는 점에서 시간제 비중이 낮은 나라들에 더 가까운 특성
 - 제조업 선진국 독일에서 기능원이나 조립 직종의 시간제 분포가 매우 낮게(3.2%)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제조업 생산직에서 여성 시간제가 늘어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 가능